

## 민주적 민족교육론이 사회과 성격에 미친 영향

유증열

공주대학교

###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존재하는 사회과 모습에는 통합·분과, 내용중심·방법중심, 지식중심·쟁점중심과 같은 다양한 논쟁이 존재하는데 이들의 표면적인 대립의 이면에는 사회과를 둘러싼 이데올로기적 혹은 가치 갈등이 개입되어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혹은 가치 갈등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내재되었던 것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데올로기나 가치 갈등 문제는 역사적 근원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회과를 둘러싼 이데올리적 갈등의 근원이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던 것으로 가정한다면 그 근원은 사회과가 도입되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과가 도입될 당시 우리나라에는 사회과라는 과목이 존재하지 않았고 한 번도 가르쳐본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교과목이었으며,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문화적 풍토 속에서 만들어진 교과였기 때문이다. 이 교과를 도입한 이들이 어떤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도입했느냐에 따라 사회과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구현될 수 있다. 즉, 오늘날 존재하는 사회과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의 연원이 사회과 도입 당시 교육주체 세력이 가졌던 이데올로기와 가치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과의 형성, 도입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로 인해 사회과의 도입 과정과 변천 및 각 시기별 특성을 잘 드러내 주고 있지만 사회과의 성격과 관련된 논란, 특히 정치권력 혹은 사회 지배세력의 가치와 이데올로기가 실제 사회과에 어떻게 적용되고 가르쳐졌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동원(2001)의 연구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한국 초기 사회과 교육에서는 다양한 이념 논쟁이 있었고, 이러한 논쟁은 그 양상과 내용은 변화되었을지라도 본질적으로 당대의 사회현상을 교육해야한다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그러한 논쟁을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회과에 어떻게 정치권력과 사회 지배세력이 개입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과의 도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인물을 중심으로 그의 사상을 분석하고 그의 사상이 어떻게 사회과 교육 특히 공민 영역에 투영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라 사료된다. 앞서 언급한 문제(정치권력과 사회 지배세력의 가치와 이데올로기 개입 문제)의 연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살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그런 인물로 초대 문교장관을 지낸 안호상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는 독일 예나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였다. 학위 과정에서 심리학과 교육학을 부전공 과목으로 수강하였으며, 학위

를 받은 다음 영국으로 건너가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철학과 교육학을 공부하였는데 그의 이러한 학문적 배경으로 교육활동에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안호상의 학문적 배경은 사회생활과는 큰 관련이 없다. 그의 학문적 배경(독일에서 철학박사 학위)으로 보았을 때 사회생활과는 매우 낮은 교과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회생활과 특히 ‘공민’분야의 보급과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46년 1월 9일부터 18일까지 군정청 학무과와 경기도 학무국이 공동으로 주최한 중등교원 강습회에서 공민을 강의하였으며<sup>1)</sup>, 1950~60년대 제1, 2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공민교과서를 집필하기도 하였다.<sup>2)</sup> 따라서 안호상은 행정가(문교장관)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교육운동가(조선교육연구회, 교과서 집필 등)로서 사회과(특히 공민 영역)의 보급과 정착에 많은 영향을 미친 만큼 그의 사상과 그의 교육적 활동을 검토하는 것은 오늘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회과 모습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살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성립기 사회과에 국한하여 접근하였으며, 내용일반·특수의 관점에서 본다면 공민 영역에 초점을 맞춘 영역·특수적 접근을 취하였다. 그리고 분석 방법은 문헌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과거에 있었던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공식 자료(문교개관, 1968년, 교수요목 1946년)과 안호상의 주요 저서인 민주적 민족론(1961), 일민주주의 본바탕(1950), 초기 교육 잡지인 조선교육, 새교육 등에 기고한 글들을 분석하였다. 이외 선행연구들과 각종 교육 사료들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먼저, 안호상의 정치 사회적 위상을 살펴보기 위해 해방이후 정부 수립시까지 우리나라 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했던 교육개혁세력들을 검토하고 이들과 안호상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그가 초대 문교장관에 입각할 수 있었던 배경을 그의 정치적·사상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그가 문교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펼쳤던 문교 시책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그가 문교장관으로 발탁된 이유를 명확히 입증해주는 과정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안호상의 핵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민주주의와 민주적 민족교육론<sup>3)</sup>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두 사상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그가 교육을 통해 기르려자 했던 인간형과 이러한 인간형을 키우기 위해 실제 그가 펼쳤던 교육 실천 양상을 그의 교육 시책들과 사회과 교과서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사회과가 도입된 이후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정치권력 이데올로기의 개입 문제가 발생한 연원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역사적 반추를 통해 미래 사회의 사회과 정체성을 의미있게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II. 사회과의 도입과 해방 후 교육개혁 세력의 정치·사회적 성격

본 절에서는 해방 후 통합교과로서의 사회과의 도입과 정착에 기여한 세력들의 정치·사회적 성격과 당

- 1) 서울신문 1947년 1월 7일, 국사편찬위원회(편), 『자료대한민국사』 1, 1969, p.810. 김한중(2006), p.315에서 재인용.
- 2) 『(중등사회생활과) 공동생활(1학년용)』, 문성각, 1956, 1965; 『(중등사회생활과) 국가생활(2학년용)』, 문성각, 1956, 1965; 『(고등공민) 정치와 사회1』, 정음사, 1956, 1965; 『(고등학교 일반사회과) 문화창조』 동국문화사, 1967. 김한중(2006), p.315에서 재인용.
- 3) 이 두 사상은 서로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일민주주의 교육을 민주적 민족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다.

시의 상황 속에서 안호상은 어떤 위치에 있었으며,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 문교장관에 발탁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이는 안호상이 당시 교육 개혁의 중심 세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교장관으로 발탁된 것은 당시 정권의 이데올로기 교육을 위한 것임을 유추하기 위해서이다.

## 1. 사회과 도입과정과 주도 세력

### 가. 사회과 도입 과정

#### 나. 사회과 도입 주도 세력의 정치·사회적 성격과 안호상의 위상

(전략)

교육위원회와 교육심의회를 주도하였던 한국인들의 가장 뚜렷한 정치적 특성은 다수의 인사들이 한민당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교육심의회는 한민당 소속 위원은 유억겸을 비롯하여 20여명에 이르렀다. 한민당 계열이 핵심적 주도 세력이 된 것은 미군정의 인사정책에 기인한다. 당시 군정청에 한국인을 추천하는 일은 한국에 와 있던 미국 선교사의 아들이며, 후에 미국 파견 사절단의 인솔자로 거론되었던 윌리엄즈 소령이 주로 맡고 있었는데 그는 한민당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미군정의 한국인 선발 기준은 일차적으로 미국인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공사상에 철저한 유능하고도 실천력이 강한 애국적 인사였어야 했다(이광호, 1985: 516).

한편, 교육위원회와 교육심의회를 주도하였던 한국인들의 사회적 성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김성수, 유억겸 등은 일본유학파로서 가계의 지배 계층적 세습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민족의 독립보다는 민족의 능력이라는 조건적 사실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민족적 독립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였다. 이들은 종합대학을 창립하는 등 국내 기반을 확보하고 있었다(이광호, 1985: 518). 또 하나의 성격은 백낙준, 오천석, 김활란과 같이 기독교라는 종교적 배경을 가지면서 미국 유학파라는 것이다. 이들은 영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며, 국제 감각과 반공 이념을 지닌 사람들이다. 일본과 미국 유학파들인 이들은 서울대, 연희전문, 보성전문 등의 국내 대학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서로 상보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 국내기반을 가진 일본 유학파와 국제 감각을 지닌 미국 유학파는 서로에서 부족한 측면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해방 후 조선교육위원회와 조선교육심의회를 주도했던 이들(우리나라 교육개혁의 주도세력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정치·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냉전이데올로기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해방 후 이범석과 함께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족청계열에 속하면서 독일 유학파였던 안호상이 교육 개혁의 주도 세력으로 부터 배제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 2. 안호상의 문교장관 발탁과 조선교육연구회의 활동

### 가. 안호상의 문교장관 발탁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해방이후 한국 교육계의 실질적인 세력은 미군정에 봉사한 ‘조선교육위원회’의 구성원들이었으며 비미국계는 배제되어 있었다. 그런데 조선교육위원회 구성원도 아니었으며 미국에 유학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호상이 초대 문교장관에 발탁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한준상, 1987:

593; 한준상·정미숙, 1989: 344 재인용). 첫째, 정치적 세력기반이 약했던 이승만이 김성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족청(조선민족청년단)계의 이범석과 제휴하면서, 족청계 인사가 정부 각료로 진출함에 따라 이범석과 긴밀한 인간관계를 맺었던 안호상이 발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안호상은 국립서울대학안(국대안) 반대 운동시 국대안 실시를 강력히 찬성하였으며, 강단에서 반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당시 서울대 우익 학생들의 이념적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교장관으로 발탁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셋째, 안호상이 평소 주장하였던 일민주의는 민족지상·국가지상을 표어로 부르짖음으로써 좌익적 이데올로기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항할 만한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던 이승만 정권에게 통치이념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발탁은 다분히 정치적인 필요와 요구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그의 퇴임과 관련된 일화를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그는 초대 장관으로서는 가장 오랜 기간(1년 9개월) 재임을 하고 1950년 5월 3일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안호상은 그의 사임과 관련하여 “글쎄 왜 그만두었는지는 몰라. 어느 날 이승만 박사가 불러 가보니, ‘이젠 그만 쉬시오’라며 말씀하시더군. 당시 내가 철기 이범석<sup>4)</sup>과 친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모략했던 것 같다.” 이 말이 그의 사임의 변이었다(손인수, 1997: 195). 그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매우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해임되었으며, 그가 더 이상 이승만 정부가 도움이 되지 못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sup>5)</sup>.

#### 나. 조선교육연구회와 사회생활과

### III. 일민(一民)주의, 민주적 민족교육, 사회과 교육

조선교육연구회의 정치적 성향은 민주적 민족교육 혹은 일민교육과 연결되면서 냉전체제의 관계 속에서 이승만 집권 세력의 지지기반을 획득하기 위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변모하게 된다. 왜 그런가? 일민주의 사상은 무엇이며, 그것이 민주적 민족교육이라는 광복 후 교육정책의 핵심 기제와 어떻게 연결되며, 일민주의가 이후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과 교실 수업 상황에서 구현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일민주의, 민주적 민족교육의 주요 주장들을 밝히고, 안호상이 문교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시행했던 시책과 그가 저술하였던 사회생활과 교과서 [중학교 1학년용 『국가 생활』과 고등학교 공민(고등학교 3학년용)의 『문화의 창조』]를 분석하였다.

#### 1. 일민주의의 의미와 성격

#### 2. 일민주의의 교육적 표현: 민주적 민족교육론

##### 가. 민주적 민족교육에서의 ‘민주’

- 4) 이범석은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초대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을 겸임하였고, 1950년 주종대사, 같은 해 내무부장관을 역임하였다. 1952년에는 원외 자유당 부당수로 부통령에 입후보하였으나 패했으며, 1953년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족청계(조선민족청년단) 숙청으로 말미암아 자유당에서 추방당하였다(손인수, 1997: 147)
- 5) 한국전쟁 발발 직전(1950년 5월 30일)에 실시된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남한 단독 선거를 반대했던 인사들이 무소속으로 대거 당선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범석과 이승만의 제휴관계는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었고, 그 결과 이범석의 사상적·실천적 동지였던 안호상 장관은 문교장관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한준상·정미숙, 1989: 346)

나. 민주적 민족교육에서의 ‘민족’ 과 ‘민족교육’

다. 교육시책에 나타난 민주적 민족교육

3. 민주적 민족교육론에 대한 비판

4. 사회과 교과서에 반영된 민주적 민족교육론

철학자인 안호상은 중등사회생활과 『공동생활』(중1학년), 『국가생활』(중2학년), 『정치와 사회』(고1학년), 『문화의 창조』(고3학년) 등을 집필하였다.

본 장에서는 안호상의 교육적 이데올로기가 구체적으로 교과서에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그가 집필한 교과서 가운데 『국가생활』(중2학년)과 『문화의 창조』(고3학년) 과목을 선정하였다. 『문화의 창조』 교과서를 선택한 이유는 역사적 산물로 규정된 민족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무엇보다 문화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그가 교과서에 제시하고 있는 문화관련 내용을 분석하면 그의 민주적 민족교육의 이데올로기가 교과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가생활』 교과서에는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잘 들어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교과서 분석은 주로 기술된 내용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가. 『국가생활』 6(중학교 2학년) 교과서 내용 분석

안호상이 집필한 『국가 생활』 교과서는 중등학교 2학년용이며, 1956년 3월에 문교부의 검인정을 받았다.

교과서의 머리말은 교과서 집필자의 집필 의도를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는 교과서 머리말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교육은 온 사람 교육(전인교육)으로서 공민 교육을 밑뿌리로 하지 아니 할 수 없다. 공민 교육의 중요성은 실사회 생활을 체험할수록 더욱 깊이 느껴진다.

(중략)

4. 단군 때의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신라의 화랑정신을 많이 또 자세히 끌어다 밝혀줄 일

그는 머리말에서 공민교육은 실사회 생활의 체험을 강조해야 하며, 전인교육을 실천하는 중요한 교과로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의 이념과 함께 화랑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sup>7)</sup>. 화랑정

6) 중학교 2학년의 『국가 생활』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집단생활로서의 국가 생활의 제 특징을 밝히는 동시에, 그 민주적 여러 제도들을 이해시켜 그에 적응하는 생활 태도를 계발하기 위한 것이며, 집단생활로서의 국가 생활의 본질을 밝힘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제도적 고찰에 그치고, 국가 의식, 국가 관념의 명확한 인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문교부, 1955).

7) 이와 달리 같은 과목의 교과서를 집필한 유진오(1963)는 공민교육에서는 “민주국가 공민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 상식을 길러주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

신에 대한 언급은 다른 교과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었다.

안호상은 교육의 목적을 민족과 국가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개인들을 재생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교과서 내용 곳곳에 투영되어 있다. 특히 국가와 개인을 다루고 있는 주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나라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 안에 지닌 하나의 종합체 혹은 종합사회다. 이 수많은 사회들은 이 종합 사회인 나라에 비하면, ... 부분사회이다. ... 이들의 공통된 목적은 다시 나라 생활을 잘 하자는 목적에 크게 귀일(歸一)된다. 그러므로 이 나라 생활은 저 모든 부분 사회의 그것보다 더 크고 높고 또 전체적이다(p. 9).

우리는 나라를 떠나서 살 수 없다. 사람이 나라 없이 산다는 것은, 죽음 같은 삶이요, 삶 같은 삶이 아니다. 사람의 참된 삶은 오직 나라 안에서만 될 수 있다. 우리 생활과 나라 생활은 절대로 떼지 못할 관계를 가졌다. ... 그러므로 우리들의 낱낱 사람의 생활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라 생활과 떼지 못할 연결성을 가졌다. 사람은 나라 안에서 나라의 덕으로 나라를 위해서 사는 까닭에, 사람 삶은 나라-안의-삶이다(p. 11).

사람은 나라 안에서 나라의 힘을 나라를 위하여 사는 까닭에, 사람은 나라-안의-사람이요, 나라-사람이다. 혹은 옛날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서력 기원전 384-322)의 말을 빌면, “조온”(Zoon 동물;動物) “폴리티콘”(Politicon; 국가적, 정치적, 사회적), 곧 사람은 국가적 동물이다(p. 12).

위 내용은 모두 국가를 최고의 위치에 놓고 개인이나 혹은 사회집단들은 국가를 위해 존재하거나 국가를 구성하는 작은 구성물에 불과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Zoon Politicon”(political animal)이라는 말을 일반적인 번역인 ‘정치적 동물’ 혹은 ‘사회적 동물’로 번역하지 않고, ‘국가적 동물’이라 번역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국가 중심주의적 사고를 학생들에게 교육하고자 하였다.

안호상은 우리가 독립국가를 수립해야 하는 이유를 단군신화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그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단군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상기한다면 그것의 등장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국조 단군 한배 검은 지금부터 4000여년 전에 ... 우리 나라를 세워주셨다. 여기에 우리 조상들은 한데 뭉쳐서 통일된 한백성이 되고, 통일된 민족이 되어, 서로 같이 잘 살았다. ... 이 거룩한 조국을 우리들은 눈물과 땀으로써 더욱 발전시킬 것이며, 만일 그것이 적에게 독립을 빼앗긴다면, 우리들은 목숨을 걸고, 그것을 도로 찾아야 한다. ... 우리는 이와 같이 땀과 눈물의 결정체인 조국을 물려 받아, 이것을 독립된 나라로서 우리들의 자손에게 온전히 물려줌이, 조국과 조상과 자손들에 대한 우리의 신성한 의무요, 가장 큰 명예다(pp. 4-5).

단군으로부터 출발하는 그의 민족관은 국가관으로 이어진다. 즉, 나라와 민족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가 단일민족 국가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의 민족에 대한 개념은 혈통을 기반으로 하

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이러한 민족관에 근거한 국가론은 대단히 국수주의적인 이데올로기로 전화될 가능성이 높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남북 분단과 6.25 전쟁, 냉전의 고착화 등)으로 인해 민족주의에 대한 요구와 필요가 강조된 시대에 사회과가 그러한 이데올로기 전수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나라와 민족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운명적 관계를 가졌다. ... 우리나라 국조 한배 검은 “사람을 크게 유익하게 함(弘益人間: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우리 민족에게 나라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셨다. ... 국민이 곧 우리 배달 민족이요, 또 바뀌어서 배달 민족이 곧 한국의 국민 전체이다. 우리에게서 우리 나라 운명이 곧 우리 민족 운명이 되는 까닭에, 나라와 민족은 다 같은 운명이다(pp. 124-125).

안호상의 이러한 단일민족국가에 대한 이데올로기는 당시 교과서 서술<sup>8)</sup>의 공통된 서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민족은 같은 혈통을 가진 민족으로 오랫동안 통일 국가를 이루어 번영을 누렸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민족이 분단되어 두 개의 국가로 나누어진 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매우 불행한 일이며 반드시 극복되어할 민족적 소명으로 삼고 있다.

우리 선렬들의 이 같은 희생은 조국의 독립을 찾아, 억만 대에 이어갈, 민족 전체의 자유와 권리,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우리들은 우리 선렬들의 거룩하신 뜻과 정신을 받들어, 우리들의 생존과 또 우리의 자손들의 생존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통일된 자주 독립 나라를 만들지 아니하면 아니되다(p. 7).

이와 함께 한국 전쟁 후 남북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사상 통일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 역시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상 통일의 강조는 결국 개인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전체주의적인 사회로 나아가게 할 가능성이 많다.

만일 우리의 국토 통일이 빨리 안된다면, 우리의 불행은 더욱 커질 것인데, 첫째로는 사상적(思想的) 불행이다. 10여년을 지난 오늘에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의 소련 노예됨도, 더욱 굳어지려니와, 민주주의자들로 민족 사상을 차차 잃어버리고, 외국의 노예사상에 점점 물들어 갈 것이다. ... 또 올바른 주의(主義)로써 우리 사상을 통일시키지 아니하면 안된다. 만일 우리의 사상통일이 없어, 정신무장이 철저하지 못한다면, 뒷날 공산주의에 완전히 멸망 당할뿐더러, 뒷날 우리의 힘으로써 평화적 통일은 더욱 하기 어렵게 된다(pp. 123-124).

8) 유진오(1963: 125)가 집필한 『국가생활』 교과서에서도 “그 때문에 민족과 국민은 다른 개념(概念)이라고 보통 말하는 것인데, 국민이라 함은 한 국가의 구성원을 말하는 것임에 반하여, 민족은 반드시 한 국민에게 한 국민에게 속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국민이 반드시 한 민족으로 구성되는 것도 아니다. 또 민족은 있으나 국가는 없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한(韓) 민족이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를 이루어, 민족과 국민이 일치되고 있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특이한 사실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으며, 왕학수(1960: 137)가 집필한 『국가생활』 교과서에서도 “우리나라는 배달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극히 편리한 점을 깊이 깨달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높은 긍지와 자각을 가져야 하겠습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첫째로 민족의 사상건설(思想建設)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사상을 확고하게 가져, 사상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사상의 통일, 건설없이는 조국 통일도 어려우려니와, 조국의 부강도 바랄 수 없다. 왜 그러나 하면, 사상 통일이 없다면, 우리는 외국의 침략과 지배를 물리칠 수 없을 것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사상 분렬로 인하여, 우리의 손으로써 우리의 모든 기관과 산업을 여지없이 파괴하여 버리는 까닭이다(p. 126).

그리고 사상적 통일 내용의 중심은 민족사상과 반공사상이다. 따라서 안호상은 사회과 교육을 통해 민족사상과 반공사상으로 투철하게 무장한 민족(국민) 구성원을 육성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가생활』 교과서를 살펴본 결과 국가는 모든 개인 및 사회 부분과 집단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존재로 서술되어 있다. 즉, 국가는 수많은 사회 조직들의 단순한 총합을 능가하는 것으로 국가 그 자체가 목적을 가지는 인격체로 그 위상을 높여놓았다.

이러한 민족(국가)관 하에서는 개인은 스스로 자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존재라 아니라 국가의 구성원으로 존재할 때만, 그리고 국가의 유지 존속에 기여할 때에만 그 존재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목적에서 벗어난 개인의 목적은 있을 수 없으며, 개인은 국가의 목적에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군, 화랑도, 화백과 같은 전통적인 사상과 단일민족 신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나. 『문학의 창조』(고등학교 3학년) 교과서 내용 분석

우리 역사는 단군(檀=막달나무단, 君=임금군) 한배(神人)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단군 님은 우리 배달(倍達=밝달)겨레의 아버지로서, 슬기(智慧)와 덕망과 능력이 신(神)과 같으시며 또 우리 겨레를 밝게 잘 가르침으로써 여러 부락 백성(部落民)들이 한데 뭉쳐 한 백성이 되어, 그를 세워 임금으로 삼았다(서기앞 2,333년). ...단군 님은 우리 배달 겨레의 아버지시오 스승(師)이시오 또 임금으로서 곧 세. 한. 몸(三位一體 삼위일체)이시다. 이 단군 왕조의 조선(朝鮮)이 약 1,000여년이 지나고 그 다음 개이지 조선(箕子朝鮮)이 또한 약 1,000년이나 오래 잤다(pp. 1-2).

이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호상은 단군을 삼위일체적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즉 단군을 아버지이자 스승이요, 임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역사 인식은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한다는 입장에서는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실증적 엄밀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당시 사열기준에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시 사회과 검정교과서의 사열 기준에는 “3. 교과과정에서 요구하는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11. 내용이 공정한 태도로 서술되어 있는가?”(문교부, 1958: 166)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볼 때 앞서의 글이 이러한 사열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가에 대해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어렵다.

이와 함께 안호상은 ‘민주적 민족주의’에서 강조하였던 민주정치의 모습을 교과서에 그대로 수록하고 있다.

우리가 이미 본바, 단군 님은 여러 부락 백성 혹은 나라사람이 세워서 임금이 되고(國人立以爲君), 또 단군은 “사람을 크게 유익하게 하기(弘益人間) 위하여 나라를 세웠다. 이것을 본다면,

단군님은 민주주의의 원칙인 뽑기(選舉)로써 임금이 되셨고, 나라에는 사람과 백성, 곧 인민(人民)이 본위요 주체(主體)임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때의 임금주의(君主主義)는 사람주의(人主義)와 민주주의를 밑바닥으로 한 선거 군주주의(選舉君主主義; 뽑는 임금주의) 였었다. 특히 신라 때 이르러 화백회의(和白會議)를 통하여 민주주의가 크게 발전하였다. 임금은 대체로 뽑았으며, 또 큰 단체의 어른(長)도 뽑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리고 신라는 나라(세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통일이 가장 큰 목적이었던 까닭에, 신라에는 민족주의(民族主義)가 또한 크게 강(強)하였다. 고려조(高麗朝)와 이씨조(李氏朝)는 군주주의(임금주의)로서 끝마쳤다(p. 5).

이러한 기술 내용은 ‘문화적 현실’을 다룬 단원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우리의 맨 옛대(太古)의 문화는 단군교(檀君敎=大倮敎대종교)를 중심으로 하고 이루어지며 발전하였는데, ... 이 3가지를 근본사상으로 하고, 다시 세속(世俗)의 다섯가지 계명(5戒)이 되었는데, ... 저 3근본사상과 이 5세속 계명이 옛날, 특히 신라 때 우리 조상들의 정신 생활과 문화 활동에 큰 원동력(原動力)이 되었던 것이다(p. 7).

한편, 『문화의 창조』 교과 내용 중에는 민주주의와 민족에 대한 기술 내용이 있다. 이 글에서 자유, 평등,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공산주의는 폭력정치로 비판하였다. 그런데 민족과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개인도 중요하지만 민족이 더 크고 중요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앞서 분석한 『국가 생활』 교과서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보다는 민족(국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근본이념으로 하여, 인권(人權)을 가장 존중한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 사회의 발달을 촉진하여, 오늘날 구미(歐美) 여러 나라의 번영을 이루었다. ...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는 계급독재주의로서 사람의 자유를 말살하는 권력주의요 폭력 정치다.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한 백성과 민족을 떠난 개인도 있을 수 없다. 우리는 개인도 중하지만, 그 보다 더 크고 중한 민족을 잊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제민족 전체의 자유와 권리가 없이 제 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p. 12).

이와 함께 그의 교과서에는 신라식 민주주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교과서에 실린 내용의 대부분은 그의 저서들(민주적 민족론, 세계신사조론, 인생과 철학과 교육 등)에서 기술하였던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우리의 맨 옛날 역사에서 “나라사람들이 단군을 세워 임금으로 삼았다”(國人立以爲君, 是謂檀君) 하였다. 마침내 나라사람들이 슬기와 덕망과 능력이 하늘 같이 높으신 단군을 뽑아 임금으로 세운 까닭에, 그것은 민주주의적이다. 신라의 첫째 임금인 박혁거세(朴赫居世)는 백성들에게 뽑혀 되었으며, 그뒤 여러 임금들이 역시 뽑혀 되었으며, 또 신라에서는 화백(和白=禿白=수삼기=뭇삼기=衆論) 회의를 열고, 나라의 큰 일들을 결정하였다. 신라는 나라통일과 민족통일의 목적으로서 훌륭한 이를 뽑아, 정리를 잘하기 위하여 민주주의를 취하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개인의

중심과 본위인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와 한 계급의 중심과 본위인 소련식이 민주주의, 곧 계급독재주의에 대립하여, 한 민족 전체를 중심으로 하고 본위로 하는 민주주의가 있는데, 그것은 민족적 민주주의 혹은 민주적 민족주의이다. 이 민주주의에는 금력과 권력이 아니라, 오직 지혜와 덕망과 능력이 높고 많은 인격자(人格者)가 첫째요 표준이다. 통일된 한 민족을 이상과 목적을 삼고, 사람을 아끼며 중히 알며 표준으로 하고, 민주 정치를 제일 잘 한 나라가 곧 신라(新羅)였던 까닭에, 민족적 민주주의는 신라식 민주주의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한 민족인 한백성 전체의 자유와 권리와 이익을 본위로 하는 이 신라식 민주주의가 우리의 정치개선에 가장 알맞을 것이다(pp. 12-13).

그는 신라식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가장 알맞다고 하였으나 그가 언급한 신라의 화백제도는 현대의 민주적 투표 제도와 그 형식과 내용이 매우 다른 것이다. 또한 임금이 뽑히는 방식, 대상, 절차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는 상당히 유리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식 민주주의를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기원이자 모범으로 삼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안호상은 사상 통일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우리의 조국이 두 동강이로 끊어지고, 우리의 국토와 민족이 이 같이 파멸된 근본 원인은 세계의 자본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과의 대립 갈등 때문인 것이다. 우리 민족의 사상 통일 없이는 우리의 완전한 국토 통일과 민족 통일이 어려울 것이며, 또 우리 문화의 개선·발전은 커녕, 오히려, 파괴와 노예화(奴隸化)만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종류의 사대사상(事大思想)과 의존사상(依存思想)을 깨끗이 버리고, 우리 자신에 돌아와, 우리의 민족 사상 위에 참된 민족 문화의 자유로운 발전을 꾀할 것이다(p. 16).

사상통일 위해서 모든 종류의 사대사상이나 의존사상을 벗어나야 함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는 6·25 전쟁과 그 이후 벌어진 남북한 간의 대립과 갈등은 극복되어야 할 민족의 시련으로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함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양심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과 활동을 억제하고 획일화·동질화 사회에 기여하는 인간 육성에 사회과가 기여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 IV. 나오는 말

전체주의적 요소를 가진 민족주의적 성격의 일민주의와 미국식 민주주의 개념, 즉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생활과는 매우 다른 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호상이 사회생활과의 출현에 기여하였고, 특히 공민교과서 집필 및 사회생활과 보급에 앞장섰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는 사회과 교육의 발달 과정에서 국가주의적 이데올로기가 개입될 수 있었던 하나의 기원임을 알 수 있으며, 해방이후 지금까지 사회과의 정체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사회과가 가지고 있는 민족 vs 세계시민, 국민 vs 시민, 개인주의 vs 전체주의, 분과 vs 통합 등의 대립과 갈등, 혼란의 근본 원인은 다분히 정치적 집단의 이데올로기적 접근(정치 사회화 수단)에 의해 사회생활과가 출현하였다는 점이다. 사회과를 정치권력의 통치 이념을 주입시킬 수 있는 정치 사

회화의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하였고,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일정한 효과를 나타낸 결과로 인해 이후 정권에서도 교육적 가치보다는 정치권력의 이념적 가치를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과에 어떻게 정치권력과 사회 지배세력이 개입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과의 도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인물을 중심으로 그의 사상을 분석하고 그의 사상이 어떻게 사회과 교육 특히 공민 영역에 투영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자는 그런 인물로 초대 문교장관을 지낸 안호상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의 학문적 배경은 사회생활과와는 큰 관련이 없으나 행정가(문교장관)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교육운동가(조선교육연구회, 교과서 집필 등)로서 사회과(특히 공민 영역)의 보급과 정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만큼 그의 사상과 그의 교육적 활동을 검토하는 것은 오늘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회과 모습의 근원을 살피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측하였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안호상은 학도호국단 결성과 같은 교육시책과 사회생활과 교과서 집필을 통해 그의 사상을 교육현장에 보급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사회생활과 교과서에서 국가를 최고의 위치에 놓고 개인이나 혹은 사회집단들은 국가를 위해 존재하거나 국가를 구성하는 작은 구성물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며, 단군으로부터 출발하는 그의 민족관은 국가관으로 이어져 사회과를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전수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였다. 그는 사회과 교육을 통해 민족사상과 반공사상으로 투철하게 무장한 민족(국민) 구성원을 육성하고자 한 것이다. 학생중심, 경험중심, 실생활중심의 새교육의 침병으로 도입되었던 사회과(사회생활과)가 정치 이데올로기에 희생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양심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과 활동을 억제하고 획일화·동질화 사회에 기여하는 인간을 육성하는데 사회과가 기여하게 되는 단초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안호상의 문교장관으로의 발탁과 사회생활과 보급에의 기여는 사회과(사회생활과)가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성격을 왜곡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 &lt; 참고 문헌 &gt;

- 강우철(1977). 한국사회과 교육의 30년. **사회과교육**, 10, 4-7.
- 교원복지신보(1989). **해방교육 40년**. 교육복지신보.
- 곽한영(2010). 초기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법교육 양상에 관한 연구-교수요목기 공민1 교과서를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5(2), 1-23.
- 김용만(1987). 한국사회과교육의 변천과 전망. **사회과교육**, 21, 61-93.
- 김한중(2006a). 일민주의와 민주적 민족교육론에 나타난 안호상의 역사인식. **역사와 담론**, 45, 313-342.
- 김한중(2006b).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 연구**. 서울: 선인.
- 남호엽(2011). <조선교육>지를 통해 본 성립기 사회과의 성격과 구조. **사회과교육**, 50(4), 259-270.
- 문교부(1958). **문교개관**.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 문교부(1955). **중학교 교과과정**. 문교부령 제45호 별책.
- 문교부(1955). **고등학교 및 사범학교 교과과정**. 문교부령 제46호 별책.
- 마미화(1991). **미군정기 사회과 도입과 성격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광희(1965). **한국 사회과 성립과정과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남수(2010). 초기 사회생활과 교수요목에 영향을 끼친 미국 근대 교육과정의 구조와 특징. **사회과 교육연구**, 17(1), 1-16.
- 박남수(1999). 초기 "사회생활과 교수요목"의 편성논리. **사회과교육연구**, 3, 108-131.
- 박은숙(1994). **사회과 문화교육의 내용분석에 관한 연구-1950~1990년대 사회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사공환 외(1949). **민주주의 민족교육론**. 서울: 동심사.
- 손인수(1997). **한국교육운동사 1**. 서울: 문음사.
- 손진태. 민주주의 민족교육의 이념. **새교육**, 1949년 2월호, 10-12.
- 안호상(1964). **인생과 철학과 교육**. 서울: 어문각.
- 안호상(1961). **민주적 민족론**. 서울: 어문각.
- 안호상(1959). **고등학교 일반사회과 『문화의 창조』**. 서울: 동국문화사.
- 안호상(1956). **중등학교 사회생활과 『국가생활』**. 서울: 동국문화사.
- 안호상(1953). **세계신사조론**. 부산: 일민출판사.
- 안호상 편(1950). **일민주주의의 본바탕**. 서울: 조문사.
- 안호상(1948). 민족교육을 외치노라. **새교육**, 8월호(창간호), 20-22.
- 안호상(1945). 학도호국대 결성의 의의. **조선교육**, 3(3), 6-7.
- 오천석(1973). **발전한국의 교육이념 탐구**. 서울: 배영사.
- 왕학수(1960). **중등공민 『국가생활』**. 서울: 광문사.
- 유신애(2002). 초기 사회과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진오(1963). **중등사회생활과 『국가생활』**. 서울: 일조각.
- 이광호(1985). 미군정의 교육정책. **해방전후사의 인식 2**. 서울: 한길사.
- 이동원(2001). 한국초기 사회과 이념 논쟁: 해방 직후 교육 이념 논쟁을 중심으로. **초등사회과교육**, 13, 69-94.
- 이상선(1946). **사회생활과의 이론과 실제**. 서울: 금용도서
- 이숙경(1983). **미군정기 민주화의 성격과 민주주의 교육 이념의 한계**.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재훈(1962). **고등학교 사회과 『문화의 창조』**. 서울: 일조각.
- 이진석(1992). **해방 후 한국사회과의 성립과정과 그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태근(1977). 중·고등학교 공민교육 내용의 변천. **사회과 교육**, 10, 57-67.
- 이혁규(2009). 사회과교육 기원 및 시기 구분 문제에 대한 고찰. **시민교육연구**, 41(4), 129-152.
- 정영수 외(1985). **한국교육정책의 이념**. 한국교육개발원.
- 정주현(1993). **미군정기 사회생활과의 도입과정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조일(2012). **사회과 교육과 공민교육**. 서울: 한국학술정보.
- 최호진·한태수(1961). **중학교용 사회생활과 『국가생활』**. 서울: 동국문화사.
- 하유식(2003). 안호상의 일민주의 연구. **한민족운동사연구**, 34, 307-342.
- 한준상(1987). 미국의 문화침투와 한국교육. **해방전후사의 인식 3**. 서울: 한길사.
- 한준상·정미숙(1989). 1948~53년 문교정책의 이념과 특성. **해방전후사의 인식 4**. 서울: 한길사.
- 함종규(1984). **미군정시대의 교육과 교육과정**.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홍용선(1992). 최초의 사회생활과 교수 요목의 특징. **한국교육**, 19, 23-46.
- 최용규(2005). 초등 사회과교육 60년: 변천과 전망. **사회과교육연구**, 12(1), 229-256.